2019년 성탄 메시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요한 4,11)



구세주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리 2,6-7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천 년 전 이스라엘의 산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하느님의 아들이었으며 죄에 물들어 멸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께서는 성당에 오시면서 예쁘게 꾸며진 성탄 구유를 보셨을 것입니다. 마구간 안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잠자고 계신 아기 예수님, 천사들과 양 떼를 지키는 순박한 목동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안에 가축이나 동물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죄를 짓고 결국 고통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참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성탄의 신비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바로 인간의 더러운 죄와 악행, 교만과 이기심 그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먹이 그릇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구세주께서 먹히는 존재가 되셨고, 인간과 세상을 위한 구원의 희생을 준비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당신의 아드님을 주셨고, 우리